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ik@ownnewengland.com
ClaraPai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새해 매사추세츠에는 서늘한 첫눈이 내렸고 한국에서는 붉은 해가 솟았다. 사진은 강릉시 경포해변에 모인 해맞이 군중들이 새해 첫해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해에는 보스톤 코리아 독자들도 두에게 상서로운 첫눈의 행운과 붉은 해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린다

보스톤 단체장 새해 인사

8면에서 10면

매사추세츠 바이오 바닥쳤나 ... 2026년 활성화 조짐

WSJ, 보스톤 바이오업계 꼭 집어 어려운 상황 조명
보스톤 바이오 상황은 바닥 친상태, 회복 징조 보여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는 증권가의 속설이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 바이오산업의 어려움을 집중 조명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제 매사추세츠 바이오업계가 바닥을 치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WSJ는 12월 말 보도를 통해 보스톤 바이오 테크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축소와 벤처 자금 위축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수백 곳의 일 자리에 지원하고도 취업에 실패하고, 켄달스퀘어를 비롯한 핵심 연구 단지의 실험실 공실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 >>7면으로 계속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OBBB법안, 2026년 시행되는 주요 세법 관련 변화들 매사추세츠에서 바뀌는 주요법안 규정들 총정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 쟁겨할 것들이 생긴다. 지난해 통과된 OBBB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병오년 새해에는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된다. 또한 연방 법과 별도로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새로 변경되는 규정들이 있다.

1.미 연방 2026년에 달라지는 주요 규칙
▶연방 개인 세금 체계변경

<전체 기사 읽기>
2017년 세제(TCJA)의 개인 소득세 인하 구조가 OBBB 시행으로 만료 없이 유지된다. IRS는 2026년 실제 세금 수준에 맞춰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원천징수표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바로 체감하는 실수령액 증가와 함께, 신고 시즌 환 >>6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2025 문 어워즈 시상식 가져

제2회 문어워즈 시상식,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 김성혁 목사 등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는 12월 20일 렉싱턴 엘크스 클럽(ELKS Club)에서 2025 문 어워즈(Moon Awards) 시상식을 개최해,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인사와 단체들의 공로를 평가했다.

문 어워즈는 KACL-NE가 2024년 시작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KACL-NE를 비롯해 이스턴 बैं크 재단(Eastern Bank Foundation), OKTA 보스톤, KCS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들과 한인 사회의 동반자 가운데,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대와 지원을 실천해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후보자는 한인들의 추천을 통해 접수되며, 최종 수상자는 한인 사회의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 문 향아리(Moon Jar) 제작 작가이자 주요 예술가로는 도예가 박경민 작가가 선정됐다. 박 작가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달향아리를 인간의 기억과 경험을 담는 그릇으로 해석하며, 전통 도자의 언어를 현대

〈전체 기사 읽기〉
적으로 확장해온 자신의 작업 세계를 소개했다.

차세대 리더를 격려하는 이머징 리더상은 션 김이 수상했다. 주최 측은 션 김이 학업과 함께 지역사회 행사와 공공 영역에서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10년 자원봉사상은 김성혁 목사에게 돌아갔다. 김 목사는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초창기부터 30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로,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며 공동체를 묵묵히 지켜온 헌신이 소개됐다.

커뮤니티 단체 부문은 국제선교회(NAICFM) 보스톤 지부가 수상했다. NAICFM은 수십년간 취약계층 지원과 한인 사회 복지 활동에 힘써온 단체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의 기업가상은 올스톤에서 카페 위켄드를 운영하는 곽주현 대표에게 수여됐다. 곽주현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외식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한식당과 포차 등 복합 외식 공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의 예술가상은 이재욱 작가가 선정됐으며, 올해의 앨라이상은 미들섹스 카운티 지점의 매리언 라이언 지검장이 수상했다. 매리언 라이언 지검장은 한인 사회와의 오랜 연대와 공공 영역에서의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린다 챔피언 회

장이 보스톤매거진이 선정한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사실도 함께 소개됐다. 린다 챔피언 회장은 발언을 통해 리더십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차별과 정체성 문제를 겪는 한인 2세들을 공동체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문 어워즈 시상식은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가 쌓아온 헌신의 역사와 현재의 리더십, 그리고 차세대를 향한 연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어워즈 후보 추천 및 선별 과정이 좀더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한인사회 전반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선정함으로써 문어워즈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협회는 문 어워즈 시상식에 이어 송년의 밤 파티를 진행했으며 DJ 피치와 이학재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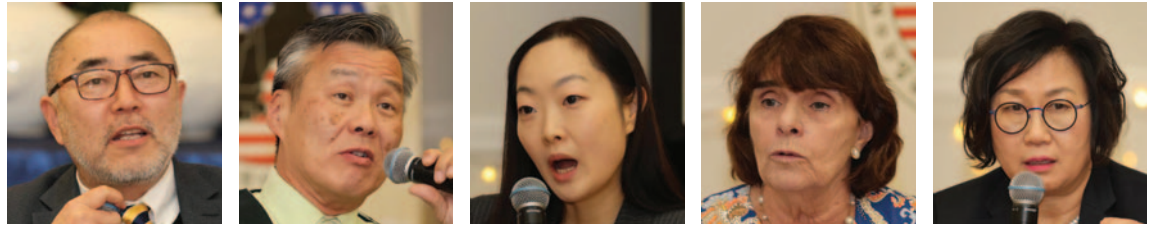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영리더십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던진 현실적 조언

시민협회 주최,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 양미아 KACL 이사장 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깊고 긴 영향을 남길 수 있는가.” 시민협회가 지난해 12월 20일 렉싱턴 엘크스클럽에 개최한 ‘영 리더십 심포지엄 (Young Leadership Symposium)’에서 범조, 정신건강,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학교 내 괴롭힘, 정신건강, 음주와 법적 책임, 진로 선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체 기사 읽기〉
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사진 전송이나 온라인 괴롭힘이 매사추세츠에서 중범죄가 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학자금 지원 제한, 취업 불이익, 이민 신분 문제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괴롭힘은 하루 종일 반복되며 피해자가 혼자서 메시지를 되새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더욱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시민협회 부회장 추경석 엔디컷 칼리지 사회과학대 부학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추 교수는 “새벽 두 시에 아이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들”이라며, 청소년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어른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 나선 양 이사장은 청소년 우울증과 위기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침묵, 위축, 과도한 분노 반응이 주요 징후라고 꼽았으며, 한국 문화에서 흔히 침묵을 사춘기나 인내로 넘기는 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즉각 해결하려 들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패널로는 매리언 라이언 미들섹스 카운티 검사장, 임상 심리상담가인 KACL 양미아 이사장, 샘 김 목사(전직 변호사), 에스터 김 법 전공 학생-검사 실무 수련생(3.03 prosecutor)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 영역에서 문제를 짚었다.

음주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라이언 검사장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로와 관련한 질문에는 패널 대부분이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답했다. 에스터 김 검사 실무 수련생은 봉사활동과 이민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진로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샘 김 목사는 전직 변호사와 군 장교를 거쳐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며, 한번의 선택에 인생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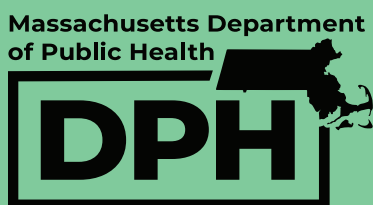
토론 말미에 추경석 교수는 패널들에게 ‘젊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패널들은 공감 능력, 책임감, 개방성, 타인의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리더십은 직함이나 스펙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말미에 추경석 교수는 패널

bostonkorean@hotmail.com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IT 무료 서머캠프 지금 등록해야...15일 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IT 비버워크스서머연구소(MIT Beaver Works Summer Institute, 이하BWSI)가 고교생들을 위한 무료 과학 서머프로그램 등록을 1월 15일 까지 받고 있다.

MIT 비버워크스서머연구소(BWSI)는 MIT 링컨연구소와 MIT 공과대학(School of Engineerin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혁신적인 고등 학생 대상 STEM 프로그램이다.

BWSI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전하는 실습 중심·프로젝트 기반 과정을 제공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BWSI 프로그

램은 MIT에서 4주과정의 프로젝트 워크샵 스타일의 코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전하는 실습 중심 및 프로젝트 기반 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팀워크,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향후 STEM 분야의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핵심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4주간의 여름프로그램은 전자 섬유 및 웨어러블 기술, 자율인지보조(CogWorks), 무인 항공기, 자율 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수중로봇, 컴퓨터 보안, 양자 컴퓨팅, 의료 분석, 임베디드 시스템 보안 등의 주제를 다

〈전체 기사 읽기〉

루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된다.

신청자격은 미국내 고교생들로 1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온라인코스를 듣고 3월 31일까지 여름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름 프로그램 지원 시, 교사 추천서, 에세이, 부모 정보 및 서명, 수상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5월 1일 발표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학교 STEM 관련 선생님 또는 멘토 등의 추천(Nomination)을 받아 온라인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각 강좌는 첨단 기술과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https://bws.mit.edu/apply-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T에는 BWSI 여름 프로그램 외에도 MITES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https://mitadmissions.org/apply/prepare/summe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보스턴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이화여자대학교 보스턴 동창회(회장 권선인)가 2026년도 장학생(회장 권선인)가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문호를 활짝 열고 꿈과 비전을 지닌 젊은 학생들의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생 모집은 이화여대 동문이나 동문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은 물론 타인종 학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대 보스턴 동창회는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젊은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한다는 취지다.

동창회 측은 “장학금을 통해 젊은 세대가 꿈과 비전을 갖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장학생 지원 마감일은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2월 중 심사를 거쳐 2월 말 선발된 장학생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체 기사 읽기〉

장학금 수여식은 2026년 3월 7일, 매사추세츠 벨링턴에 위치한 세븐스프링 클럽 하우스에서 열리는 신년총회 자리에서 진행된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공정원 장학위원장(ewha.scholarship@gmail.com)에게 하면 되며, 이화여자대학교 보스턴 동창회 웹사이트 (<https://ewha-boston.net>)를 통해 자세한 지원 방법과 신청서를 확인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장학생 모집 대상자:

- 보스턴 대도시권(뉴잉글랜드) 지역의 거주자
- 동창회 회원의 자녀 혹은 지역 사회 학생 (한인 & 타인종)
-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비전이 분명한 자
-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같은 해에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가 우선

bostonkorean@hotmail.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교육부, FAFSA에 새로운 지표로 졸업 후 소득 데이터 포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교육부는 12월 중순 예비 대학 지원자들이 특정 대학 졸업생들의 전형적인 졸업 후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득 지표(earnings indicator)' 를 공개했다.

이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칼리지 스코어카드(College Scorecard)' 의 한 부분이며,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절차의 일환으로 예비 학생들에게 소득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학들은 FAFSA 정보를 활용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원 가능 금액은 각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가정은 이제 특정 대학을 졸업한 뒤 학생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공별 급여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소득 정보는 현재 칼리지 스코어카드에는 제

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이번 FAFSA의 새로운 기능은 공개된 소득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예비 학생들이 빚을 떠안기 전에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 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비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연간 중위 소득(median annual income)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FAFSA 데이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은 졸업생들의 소득만 포함된다고 온라인 도구는 설명하고 있다.

이 소득 지표는 교육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며,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을 제시한다. 평균값은 수백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자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높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약 2퍼센트의 대학 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도 낮은 소득을 버는 대학에 다

〈전체 기사 읽기〉

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도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들은 연간 최대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울거울 학생들이 예상 소득이 낮은 대학에 대해 FAFSA를 작성할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낮은 소득 경고(lower earnings disclosure)’ 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졸업생 소득이 낮은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규모의 영리 대학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맥마흔 장관은 “현재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대학 학위가 그비용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며 “가정들은 고등교육이 실제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그림을 볼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새로운 도구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육부 칼리지 스코어카드 기준, 매사추세츠주 20개 대학의 졸업 후 중위 소득이다.

- MIT: 14만 3천 달러
- 밥슨 칼리지: 12만 4천 달러
- 보스턴 칼리지: 10만 4천 달러
- 하버드대학교: 10만 2천 달러
- 노스이스턴대학교: 9만 3천 달러
- 브라운대학교: 9만 3천 달러
- 홀리크로스 칼리지: 9만 1천 달러
- 웰슬리 칼리지: 8만 5천 달러
- 보스턴대학교: 8만 3천 달러
- 터프츠대학교: 8만 3천 달러

- 애머스트 칼리지: 7만 8천 달러
 - 브랜다이스대학교: 7만 7천 달러
 -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7만 2천 달러
 - 매사추세츠대 다트머스: 6만 9천 달러
 - 매사추세츠대 보스턴: 6만 6천 달러
 - 매사추세츠대 로웰: 6만 5천 달러
 - 스미스 칼리지: 6만 4천 달러
 - 에머슨 칼리지: 6만 3천 달러
 - 클라크대학교: 6만 2천 달러
 - 마운트 홀리요크 칼리지: 5만 8천 달러
- hsb@bostonkorea.com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 2026년 신년 모임 열린 파티 1월 10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회는 2026년 신년을 맞아 1월 10일 토요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년모임 열린 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문 이영길 담임 목사(서울대 의대 1학번)가 오랜 세월 시무해 온 보스톤한인교회 (KCB, 32 Harvard St., Brookline)에서 열리며, 가족과 아이를 동반한 참석도 환영하는 Family & Baby Friendly 행사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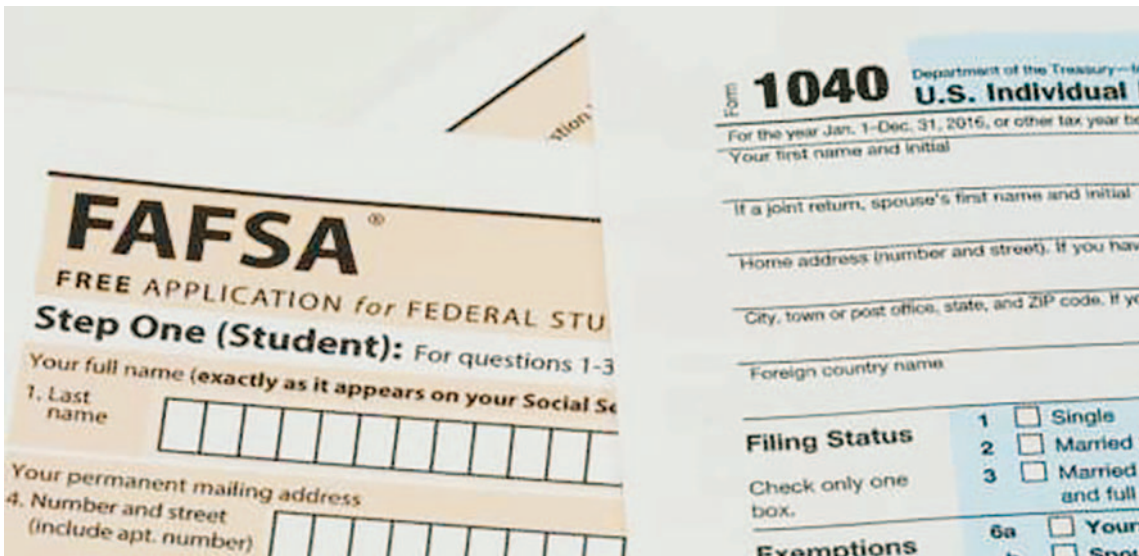
행사는 오전 10시 조식 커피로 시작해 오전 11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정오에는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오후 2시에는 최근 한인

〈전체 기사 읽기〉

사회의 관심이 높은 K-젊은이들의 비자·이민·진로 방향을 주제로 한 줌(Zoom)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원덕수 서울대NE동문회 회장은 “미국에 와 있는 젊은 유학생들과 포닥들은 회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미혼의 많은 선남선녀들이 함께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동문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원덕수 회장(617-921-6798, douglasdwohn@gmail.com) 또는 정해원(emilo83@gmail.com)에게 하면 된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1면에 이어서

금액 확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팁 소득: 2029년까지 연간 2만5,000 달러까지 연방소득세 면제된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15만 달러 초과)에선 단계적으로 혜택이 줄고, 자동 서비스 차지 등 일부는 제외된다.

초과근무수당: 연간 1만2,500달러 까지 연방소득세 면제, 팁소득처럼 고 소득 구간에서 단계적 축소

65세 이상 추가 공제(deduction): 시니어는 최대 6,000달러까지 추가 공제된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2025년부터 미국 내에서 조립한 개인 차량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 달러 공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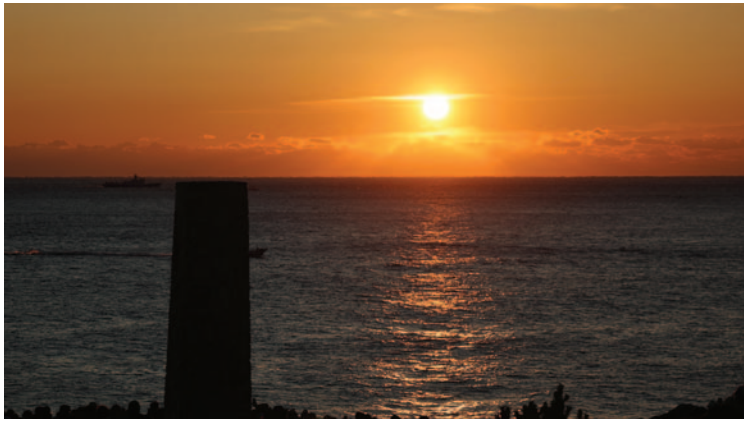
SALT 공제 한도: 재산세와 주 소득세(SALT)공제 한도가 2029년까지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된다. 매사추세츠처럼 재산세와 주세금이 높은 중산층은 주세금이 1만달러를 훌쩍 넘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표준공제사용자도 기부공제 가능: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쓰는 비항목공제자(non-itemizing taxpayer)도 개인 1,000달러, 부부합산 2,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방기업세제개편

이번 기업세제개편은 법인세인하 구조를 유지하며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지출을 더 크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 20% 공제 확대 · 연장: 한인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 즉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LLC, S법인이다. 따라서 소득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작용



한다.

설비투자: 일정 장비 구입비를 “즉시 전액 비용처리(full expensing)” 허용한다. 기존의 단계적 축소 흐름을 되돌리는 취지다.

R&D: 미국 내 R&D비용 전액 비용처리 허용, 소기업은 2022년 이후 R&D를 소급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자비용 공제 확대: EBITDA 기준에서 EBIT로 좁아졌던 공제 계산 기준을 다시 넓힘.

▶현금 해외송금(Remittance) 1% 세금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머니오더·캐시체크 등 “현금성 수단”으로 해외송금을 보낼 때 1% 연방 소비세(Excise tax)가 붙는다

▶SNAP(푸드스탬프) 근로 요건 강화

SNAP 근로요건은 월 80시간(주당 약 20시간)의 근로 또는 직업훈련 참여가 기준이며, 2026년부터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연령대가 54세까지 확대 된다.

2매사추세츠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안

▶PFML(유급 가족·의료 휴가) 최대 주급 상한 인상

2026년 최대 주급 상한액은 2025년

1,170.64달러에서 1,230.39달러로 인상된다. PFML 지급액 산정은 2026년 주 평균임금(State Average Weekly Wage, SAWW)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6 SAWW는 1,922.48달러이다. 자신이 받는 주급에서 주평균임금의 50% 이하 부분은 80%를 지급받고 50%를 넘어가는 부분은 50%를 지급 받게 된다.

▶대마카페 허용

매사추세츠 대마 관리위원회가 ‘현장 소비(on-site consumption)’를 허용하는 3개 라이선스 유형을 승인했고, 각 시·타운이 주민투표/조례로 “옵트인(Opt-in)” 해야 실제로 허용된다.

▶보트 안전 교육·자격증 의무화

보트 및 수상스키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26년 4월 1일까지 보트 안전 자격증(boater safety certificate)이 의무화된다. 198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2028년 4월 1일까지 보트안전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학교버스 자동 단속카메라, 고양이 발톱 제거(디클로잉) 제한 강화 등은 2025년에 법제화돼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더욱 확산된다.

보스톤 주택시장, 거래 숨고르기 중 집값은 상승

거래량 늘던 흐름 바꿔 11월에는 지난해보다 거래 줄어 연준 금리인하에 구매자들 추가 금리하락 대기 중인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주택시장이 11월 들어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금리가 일부 내린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주택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의 주택 구매자와 매도자들은 사실상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들어 모기지 금리는 2023년 10월 고점과 비교하면 1.5 퍼센트포인트 이상 내려왔지만,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에서는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GBAR)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은 786채로, 지난해 같은 달 839채보다 6.3퍼센트 줄었다.

주 전체에서도 같은 추세다. 주 전체의 판매 완료된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동산 분석업체 워렌 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전체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은 3천353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퍼센트 감소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다. 충분하지 않은 매물 속에 구

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이 제한된 주택을 놓고 경쟁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에서 지난달 거래된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92만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86만 달러에서 7.6퍼센트 상승했다.

GBAR 회장인 마크 트리글리오니 프리미엄 리얼티 그룹 대표는 “올해 들어 매물이 늘어나는 시점이 몇 차례 있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워런그룹의 캐시디 노턴 부대표는 “높은 금리가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과거 흐름을 보면 가을철 가격 정체는 계절적으로 흔한 현상”이라며 “겨울철 비수기를 앞두고 거래가 둔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21 퍼센트로, 2023년 10월의 7.8퍼센트 고점에서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정도의 금리 하락만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을 다시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2026년 경기침체 올까... 지표는 안정, 체감은 불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글로벌의 셸리 링 칼럼니스트와 경제 전문 기자 래리 에델먼이 2026년을 앞두고 미국 경제의 흐름과 분위기에 대해 논했다. 두 기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경제 상황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지표나 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수치는 아직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른바 ‘분위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같은 침체 체감이 더 강할 수 있다.

에델먼은 현재의 경제 분위기를 “조심스러운 비관론”이라고 표현하며, 새해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2026년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미국 경기침체 확률은 30퍼센트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전망은 자주 빗나갔다.

소비 지출은 아직까지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는 연말 쇼핑 시즌에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소비자 계층 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는 소비가 위축되는 반면, 고소득층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물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퍼센트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하한 것은 고용 시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에델먼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경제에는 추가 부담 요인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

<전체 기사 읽기>
정부가 하버드대와 MIT 등 주요 대학의 연방 연구비 삭감을 추진하면서 고등교육과 병원 산업 전반에 긴축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외식, 소비, 주택 개보수, 자동차 구매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년에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로는 인공지능과 고용 지표가 꼽힌다. AI 확산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기업가치는 급등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사람 채용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에델먼은 2026년이 고용 시장이 단순한 둔화 국면인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스톤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제는 아직 침체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체감 경기와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바닥쳤나... 2026년 활성화 조심

▶▶1면에 이어서
은 업계의 힘든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같은 ‘나쁜 뉴스’가 쏟아지는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들도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이 연이어 보도한 두 건의 기사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들어 매사추세츠바이오 산업 전반에 서서히 자금과 거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2025년 12월 한 주 동안에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32억 달러를 조달했다. 중·후기 임상 데이터와 명확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투자가 아니라 실행력과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 자금이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합리적인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공개 시장도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기반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IPO 준비에 나서며, 2026년에는 상장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수·합병(M&A) 움직임도 눈에 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가 RNA 치료제 기업 오비탈 테라퓨틱스를 15억 달러에 인수했고,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은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리오 홀딩스를 약 89억 달러에 사들였다. 대형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바이오 업계 전반의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여기에 제조 부문에서도 변화가 감지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내 제조회귀 기조 속에서, 매사추세츠는 드물지만 의미 있는 바이오 제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모더나는 노우드(Norwood, MA)에 위치한 자사 시설에 1억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의약품 완제 제조 공정을 미국 내로 이전하고 있으며, 알나일랩 파마슈티컬스도 노턴(Norton, MA) 시설에 2억5천만 달러를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가 여전히 노스캐롤라이나나 텍사스처럼 대규모 제조 허브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 중심지와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스바이오의 캔달 벌린 오코넬 최고경영자는 바이오 제조 시설이 연구 현장과 가까울수록 기업과 지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벤처 자금은 여전히 과거 호황기 수준에는 못 미치고, 연방 차원의 연구비 배분 구조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듯, 인재 유출과 지역 간 경쟁은 매사추세츠 바이오 생태계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회복, IPO 재개, M&A 활성화,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제조 투자까지 겹치면서 2025년 말은 매사추세츠바이오 산업이 최악의 국면, 즉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장이 가장 비관적일 때가 바닥이라는 통념처럼, 2026년은 매사추세츠 바이오가 다시 숨을 고르며 재도약을 모색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트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떡국 잔치

보스톤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떡국 정찬을 대접하고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일시: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대상: 보스톤 지역 거주 어르신 누구나
장소: 보스톤새소망 글로벌 감리교회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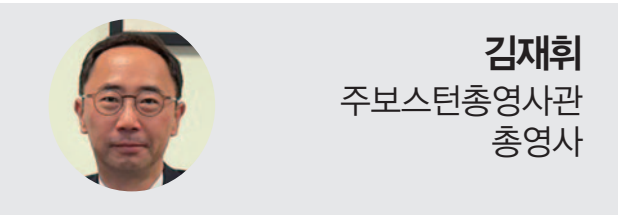
문의: 김지영 전도부장 (603) 674-3415
진남조 목사 (201) 667-9777

I 2026 신년사

동포사회의 변화를 한눈에 내다본다!

올해도 변함없이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부 기관 및 단체장들의 신년사를 게재합니다. 올해는 상당수의 단체장님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각 단체들은 여러가지 실행력과 활약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새해에도 더 활기찬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의례적인 신년사가 아닌 동포사회의 네비게이터입니다. 시간을 내서 읽으시고 한인사회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병오년은 뜨거운 한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편집자 주)

〈전체 기사 읽기〉



김재휘
주보스톤총영사관
총영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운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큰 도약과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포 여러분들은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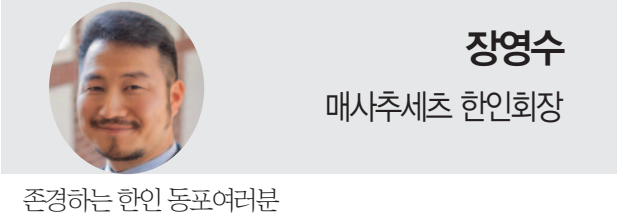
2026년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보스톤 한인동포사회 역시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포사회 주역으로 성장한 차세대 여러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힘차게 날개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곳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혁신적인 협력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동력으로서 역할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며 정체성을 단단히 다져갈 것이고, 보스톤 전역에서의 K-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열정과 잠재력이 실질적 성과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첨단기술, 문화적 역량을 'K-Initiative' 라는 큰 틀 안에서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더욱 널리 확산시키겠습니다.

총영사관은 새 공간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동포사회와 더욱 가깝고 폭넓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포 여러분들 더욱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스톤대한민국총영사관 직원 일동



장영수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존경하는 한인 동포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함께 힘들었던 시간을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 불타는 말의 힘입어 새롭게 뛰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민족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동포들이 서로 화합하여 한인사회가 단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 한인회는 1953년 유학생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난로위의 눈과 같습니다"는 의식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한인회는 임원진 그리고 김동원 이사장님을 필두로 한 이사진들이 힘을 합해 새로운 한인회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로서 주보스톤 총영사관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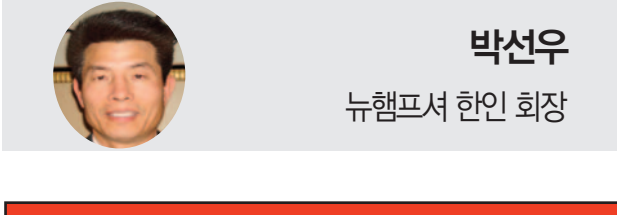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2세, 3세 들의 한인사회 참여에 길을 여는데 힘쓰고, 소외된 한인사회에 힘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함께하며 한인사회의 존재와 역량을 매사추세츠에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동포여러분들의 참여와 도움없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2026년 함께 힘을 합쳐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또한 2세, 3세대와 함께 자랑스러운 그리고 든든한 한인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정에 화목을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병오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 회장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I 2026 신년사

▶▶8면에 이어서

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포여러분, 특히 올해는 미국에서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복리를 위해 '누구를 왜' 선택하는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늘 고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명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안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이강원
평통 보스턴 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회장이 강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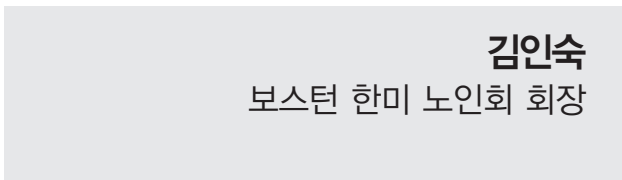
우리 평통 보스턴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보스턴 총영사관, 특히 김재휘 총영사님과 이재수 평통 미주 부의장님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사회의 의견과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현지사회를 잇는 공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국 역사와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교육의 도시이자 학술 및 연구의 중심지인 보스턴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보스턴에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단합과 차세대의 참여를 이끌며,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성실히 전통을 이어오며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 오신 지난기의 여러 평통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2기는 21기와 원활한 인수인계 (seamless transf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범식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쉽지 않은 행정일을 담당하고 계신 이금주 간사님, 회장단과 임원진, 상임고문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북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는 22기 보스턴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위대한 사회, 미합중국,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새해 병오년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보스턴 한미 노인회 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스턴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미노인회 회원 여러분께

병오년(2026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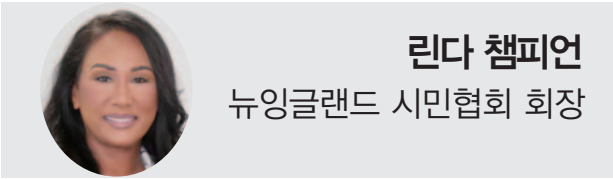
부족한 저에게 보스턴 한미노인회 회장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 한미노인회는 이민의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귀한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따뜻하고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친교와 나눔의 자리를 확대하고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노인회가 외로움이 아닌 웃음이 있고, 형식이 아닌 마음이 오가는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린다 챔피언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

Dear Friends and Supporters,

As we welcome the New Year,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nc. extends our deepest gratitude for your trust, collaboration, and steadfast support throughout 2025. Your partnership has strengthened our mission and expanded our impact across the Commonwealth and beyond.

This year, together we achieved meaningful milestones. We became a nationally recognized nonprofit 501(c)(3) tax-exempt organization, positioning KACL-N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and growth. We were honored to support the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t the Peabody Essex Museum, advancing public understanding of Korean heritage and its contributions to American life. We also welcomed new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Mass Cultural Council, the Asian Community Fund, and Eastern Bank Foundation. Support from major institutions affirms the work you have enabled us to do.

Our collaborative spirit flourished through the 2025 Moon Awards and our partnership with artist Kyungmin Park, further elevated Korean American artistic excellence. We deepened our commitment to Korean Seniors and brought communities together through events which included AAPI Community Day at the Museum of Science, AAPI Community Cruise, the Somerville Lunar New Year Rolling Parade Concert, and our first Comedy Night. Thank you to everyone who attended, supported and posted each a celebration of culture, civic engagement, and the shared joy.

Looking ahead to 2026, we invite you to stay connected and help us grow our community by following us on social media (Facebook: KoreanAmericanCitizensLeague and Instagram IG: kac1_ne) and by making KACL-ne.org part of your charitable giving in 2026. Your support helps our promise to amplify the voices and 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 an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hrough our annual summer civic engagement and leadership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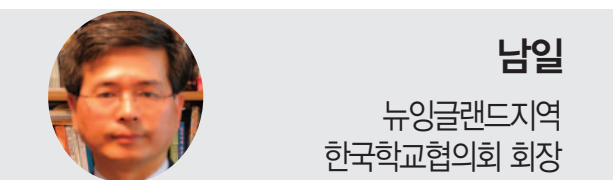
Wishing you and your families a healthy, prosperous, and fulfilling New Year. We are honored to work alongside you and remain committed to serving our community with integrity, purpose, and impact.

With appreciation and hope,

Linda Champion, Esq.

President,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nc.

Boston Magazine 2025 Top Lawyer



남일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회장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길선운집(吉善雲集)'의 뜻처럼, 선한 마음과 바른 뜻, 귀한 인연이 구름처럼 모여 뉴잉글랜드지역 동포사회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잉글랜드지역 한인 사회와 차세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김재휘 총영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 단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책임 있는 리더십은 뉴잉글랜드지역의 동포사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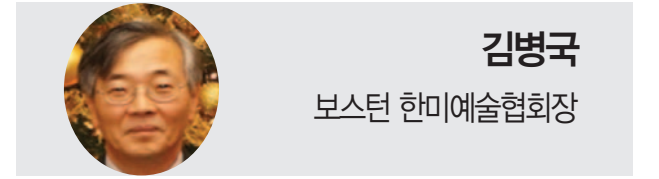
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며 차세대를 길러 오신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의 내슈아한마음 한글학교(교장 박노환), 누리 한국학교(교장 이현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교장 김희봉), 메인 한글학교(교장 안영례),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교장 장성철), 보스턴중앙교회 한국학교(교장 송미경), 보스턴 한국학교(교장 강상철), 보스턴천주교 한국학교(교장 서용학), 북부보스턴 한국학교(교장 김하나), 애머스트 한국학교(교장 이주미), 우스터 한국학교(교장 윤미량), 푸르미 한국문화학교(교장신영주)의 모든 교사 여러분, 저희 협의회 오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 및 늘 최선을 다해 협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말마다 이어진 수업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준비의 시간 속에 담긴 각 학교 교사 여러분의 노력이 동포 2세들의 뿌리를 지켜 주고,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힘차게 시작하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서로의 좋은 뜻이 모여 더 큰 결실을 이루고, 그 결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2세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 첫 행사로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행사가 3월 27일에 보스턴장로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와 후원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체 위에 건강과 평안, 무한한 발전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병국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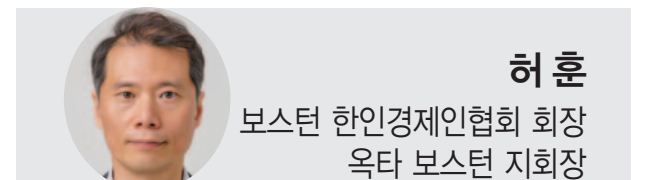
올해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교민 여러분들께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중에도 모두 보람있는 한 해 지내셨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띠 해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새해도 더욱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미예술협회도 뛰는 말처럼 기운찬 한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곽유경 (Gina Kwack) 씨께서 부회장직을 새로 맡아 젊은 세대와 함께 창의적인 비전으로 더욱 활기차게 도약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행사는 1월에 있을 오정희씨의 가야금 병창 연주와 2월 보스턴 미술관에서의 음력설 축제로 시작합니다. 올해 갈채를 받았던 '외국인들을 위한 제 2회 한국 가곡 콩쿨'을 비롯해 전시회, 음악회, 워크샵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MIT와 공동으로 판소리 워크샵과 음악회를 열 예정이며, 보스턴에서 최초로 호텔 아트 페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행사들은 그간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영옥 이사장님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에 의해서만 가능하였으며 협회 이사 및 임원 분들과 주민 분들의 지속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조로 한해를 계획할 때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훈
보스턴 한인경제인협회 회장
옥타 보스턴 지회장

보스턴 코리아를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4대 월드 옥타 (World Overseas Korean Economic & Trade Association) 보스턴 지회장 및 보스턴 한인 경제인 협회장을 맡고 있는 허훈입니다.

▶▶10면으로 계속

I 2026 신년사

▶▶9면에 이어서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2026병오년,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보스턴 한인 경제인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여러가지 일들을 해왔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기억나는 부분은 우리 협회가 제2회 8.15 달리기를 후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고 함께 가기로 결의했던 순간입니다. 우리 협회 정혜인 차세대 위원장이 중심이 돼, 2024년에 처음으로 8월 15일 광복절에 보스턴 찰스강변 8.15km를 달리기를 하며 기념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 좋은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2025년부터는 한인 업체들의 기부, 태극기와 상품들을 후원 받고 행사 후에는 조촐한 뒤풀이까지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협회가 좀더 미리 준비하고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즐거운 광복절 8.15 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곳을 빌어 작년에 후원해 주셨던 모든 업체 및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같은 얘기지만 다른 내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광복절을 기쁘게 기념하며 붉은 말들이 뛰

놀듯이 우리들 모두 함께 힘차게 뛰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코리아 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BS) 회장 이동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고,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스턴코리아 모든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NEBS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이오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회원 여러분의 학술적 교류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룬 연구자들

들을 초청하여 Monthly Seminar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회 NEBS Annual Conference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히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NEBS는 Monthly Seminar와 Annual Conference를 통해 뉴잉글랜드 지역 바이오 연구자 여러분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커피아워와 같은 소셜 이벤트를 통해 부담 없이 주변 한인 과학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 단체, 기업의 채용 공고를 신속히 공유하고 채용 설명회를 주관함으로써, NEBS 회원 여러분의 커리어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nebskorea.com에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하시면 NEBS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EBS를 대표하여, 바이오 연구자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2026년 한 해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丙午)년(붉은 말의 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미국 새해맞이 축하무대 달군 K팝...르세라핌 · 케데헌 공연

뉴욕 ·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워싱턴DC선 내년 건국 250주년 축하행사
트럼프는 자택 마라라고서 파티...새해 결심 문자 "지구촌 평화"



뉴욕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에서 공연한 K팝 그룹 르세라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 K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인상적인 무대를 펼쳤다.

걸그룹 '르세라핌'은 이날 저녁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미국 ABC 방송의 새해맞이 프로그램 '디클라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무대에 올라 대표곡 '스파게티'(SPAGHETTI)와 크레이지(CRAZY)를 불렀다.

빨간색의 짧은 치마 의상을 입고 등장한 르세라핌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앞둔 타임스퀘어의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스파게티와 크레이지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곡이며, 특히 스파게티는 발매 후 빌보드 '핫 100' 50위권에 진입해 화제를 모았다.

르세라핌은 공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여기 뉴욕에서 여러분들과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다"면서 2026년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ACB 방송이 마련한 라스베이거

스 무대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걸그룹 헌트릭스를 노래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등장했다.

검은색 의상을 택한 케데헌 팀은 OST 대표곡인 '골든'(Golden)을 열창했다.

골든은 올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한 곡이다. 빌 보드는 케데헌 음원 돌풍을 '올해의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케데헌 팀은 노래를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국말로 새해 인사를 했다.

'뉴 이어스 로킹 이브'는 매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전파를 타는 미국의 유명한 새해맞이 프로그램이다.

르세라핌과 케데헌이 미국의 대표적인 연말 행사에 출연한 것은 세계적인 연말 행사 속에서 K팝이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례로 평가된다.

르세라핌이 공연한 타임스퀘어 무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에 맞춰 지름 3.8m, 무게 5.6톤(t)에 달하는 대형 크리스털 볼이 건물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크리스털 볼드롭'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이날 수십만 인파가 몰렸다.

앞서 르세라핌처럼 타임스퀘어 볼드롭 무대에 올랐던 K팝 스타로는 싸이(2012년), 방탄소년단(2019년), 제이홉(2022년)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새해 전야에 백악관 인근의 워싱턴기념탑을 중심으로 축하행사가 열렸다.

워싱턴기념탑은 성조기와 미국 독립선언서 등의 조명으로 장식돼 축하 분위기를 달궜다.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다양하게 준비된 축

하행사의 신호탄이다.

건국 250주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프리덤 250'은 "미국의 25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일 초"라며 "이번 워싱턴기념탑 조명 장식은 내년 1년간 계속될 국가적 중요 행사의 상징적 첫 순간"이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크리스털볼도 성조기 조명으로 장식되며 건국 250주년을 축하했다. 내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도 크리스털볼을 성조기 모양으로 장식하는 축하행사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 주의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신년 전야 파티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결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지구촌 평화"라고 했다.

마라라고 파티에는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물론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도 참석했다.

withwit@yna.co.kr






중원 **좋은사람들**
www.jungwon.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원 **좋은사람들**
www.jungwon.co.kr
성모안과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60년만에 은퇴하는 '오마하의 현인' 버핏...누적 수익률은 610만%

새해 첫날 부회장에게 버크셔 CEO 자리 넘겨...회장직은 계속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5)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자로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버크셔 CEO로 취임한다.

망해가던 직물회사인 버크셔를 인수해 연 매출 약 4천억달러(약 579조 원) 규모 지주사로 키운 '오마하(버크셔 소재지)의 현인' 버핏은 이제 CEO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으로만

남는다.

버크셔 회장직을 유지하는 버핏은 앞으로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매일 출근해 에이블 부회장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때 회사에 합류했다. 그는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지냈다.

앞서 버핏은 작년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으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버핏이 CEO로 재직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버크셔 A주 주가는 전장보다 0.1% 하락한 75만4천800달러, B주는 0.2% 내린 502.65달러로 각각 마감했다.

이로써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1965년부터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 온 투자자들은 60년간 약 610만에 이르는 누적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부터

아이스크림 업체 데어리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며 자회사 수십 곳을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작년 9월 30일 기준 버크셔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천817억달러(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천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주요 종목은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세브런 등이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해 주식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가치투자 전략으로 자산을 불려 나갔다.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 철학으로도 유명하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하는 투자 책임자 역할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버핏의 자산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천500억달러(약 217조원)로, 세계 10위 부자다. 그는 막대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또 그는 소박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1958년에 3만1천500달러에 구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 여전히 거주하며, 먹거리로 맥도날드 음식과 코카콜라 등을 즐긴다.



워런 버핏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수급자 선정시 '청년' 기준 · 자동차 재산 기준 등 완화 생계급여 부정수급 고발 기준은 강화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끌어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천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오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헬로아카이브 구매하기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원...인상률 역대 최고 수준 - 2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천287원에서 올해 207만8천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천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상향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에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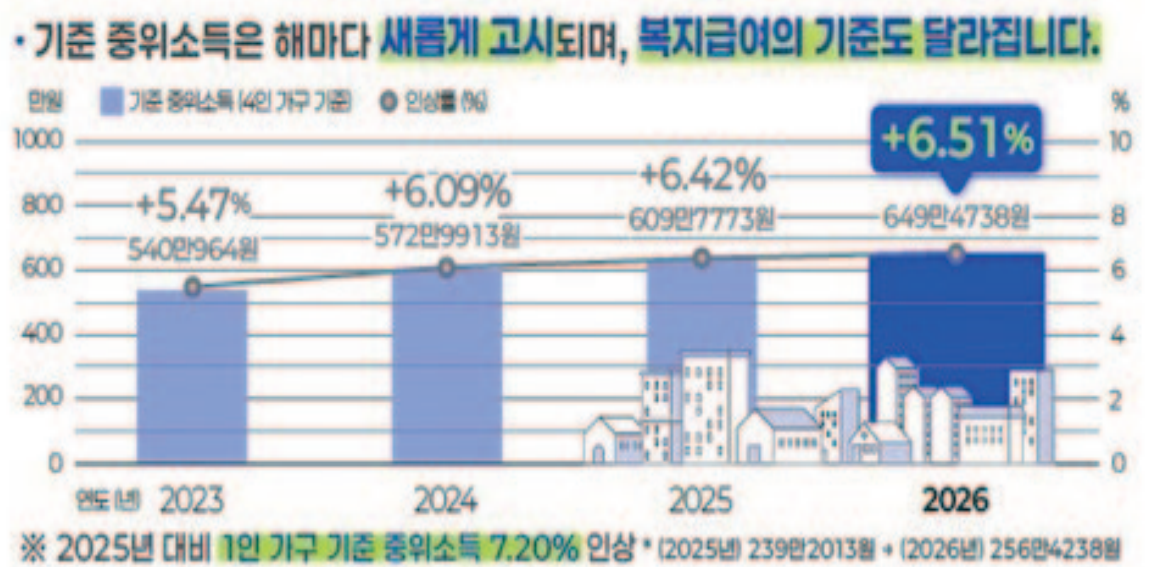
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3년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명 '갭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AN. 2nd - JAN. 8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KOREAN RICE CAKE SOUP

A comforting bowl to welcome the New Year, made with soft fresh rice cakes and a soothing, savory broth. Try making this classic at home with H Mart's fresh ingredients.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 H 마트의 신선한 재료로 소중한 분들께 진심을 전하세요.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3 CNT/PKG \$9.99	Lucky Apple 복 사과 BOX \$19.99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9.9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	Chinese Pomelo 중국 포멜로 LB \$1.29	Korean Sweet Potato 고구마 LB \$1.99	Yellow Dragon Fruit 노란 용과 LB \$4.99
Cherry 체리 1 LB/PKG \$5.99	Oyster Mushroom 느타리 버섯 3 LB/BOX \$9.99	Small Bok Choy Tip 스몰 박초이 팁 LB \$1.49	Korean Chestnut 한국산 밤 PRODUCT OF KOREA LB \$2.99	Sharon Fuyu 샤론 단감 BOX \$14.99	Korean Radish 한국 무 BOX \$14.99	Mandarin with Leaf 잎 달린 만다린 12 LB/BOX \$24.99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99
Fresh Boneless Pork Loin Chops 생 뼈없는 등심 폭찹 LB \$5.99	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 생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6.9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FAMILY PACK/LB \$3.4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Fresh Rainbow Trout 무지개 송어 LB \$5.99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5.99	Fresh Butterfish 병어 200-400'S/LB \$3.99
TONGTONGBAY Frozen Tilapia Fillet 통통배 탈라피어 필렛 LB \$3.99	Frozen Pollock Roe 동태알 LB \$5.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SHIM-TAEKYUNG Japchae Korean Sweet Soy & BBQ Flavor Cup Glass Golden Noodles 농심 태경 컵잡채 3.63 OZ X 6 EA/BOX \$14.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 RUBBER GLOVES \$10.99
PULMUONE Plantspired Plant Based Flat Dumplings 풀무원 식물성 납작만두 24.7 OZ \$6.99	PULMUONE Mini Wontons Flavored with Pork & Leek 풀무원 생가득 물만두 1.32 LB \$7.99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2.99	KTOWN Hula Ramyun 케이타운 홀라면 4.16 OZ X 16 EA/BOX \$10.99	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1.1 LB \$4.99	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그 집 떡갈비 전동/매콤 떡갈비 ORIGINAL/SPICY 16 OZ \$9.99	PK KYUNGBOK KUNG KOREAN BBQ Galbi-tang Beef Short Rib Soup 피케이 경복궁갈비탕 19.4 OZ \$8.99
PK Mi Yeok Guk Seaweed Soup with Beef 피케이 소고기 미역국 15.9 OZ \$4.99	CHUNG JUNGONE Smoked Cooked Sausage 청정원 참작 흑돼지 바베큐 소세지 8 OZ \$4.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르셀 궁중당면 필드 1.5 LB \$3.99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1.37 OZ X 12 EA/PKG \$3.99
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0.81 OZ X 12 EA/PKG \$3.99	HAIOREUM Aloe Vera Drink 해오름 알로에 주스 ORIGINAL 50.7 FL OZ 2\$4 FOR	HELLO KITTY Paper Towels 헬로키티 키친타월 \$21.99 \$16.99 12 ROLLS PKG	SHINIL Electric Resin Carbon Heater 신일 전기 레진 카본 히터 16 INCH/EA \$169.99 \$109.99	STEAMBOY Carbon Mat 스팀보이 카본매트 PURPLE/GRAY SINGLE (1050 X 2000 MM) \$199.99 \$99.99 EA

TOBAGI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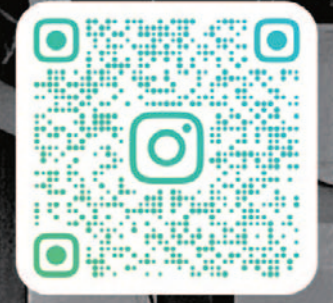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e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n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n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g@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y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1111@hot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해가 솟고 있다.

"붉은 말처럼 힘찬 한해를"...강추위에도 해맞이 명소 100만 인파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12·3 비상계엄 가담' 탄핵소추 1년만
경찰수장으로 헌정사상 첫 사례...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
趙 입장문 "헌재 결정 존중...공직사회서 같은 사례 반복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힘차게 뿔박질하는 말처럼 제 인생도 앞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전국 곳곳에 한파가 닥치고 찬 바람이 불었지만, 해맞이명소에는 첫 일출을 보면서 새 희망을 바라는 인파가 넘쳤다.

해맞이객들은 목도리와 장갑, 담요 등으로 온몸을 감싼 채 첫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빌었다.

전국 종각에선 자정을 넘겨 새해로 접어들자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올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 "경제 좋아지고 가족 건강하기를"...해맞이 명소 곳곳 북적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는 지자체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지고 때때로 바닷바람이 불었으나 해맞이객들은 새벽부터 나와 어둠이 열리지기를 기다렸다.

점점 날이 밝아지면서 해돋이 예상 시각인 오전 7시 31분이 가까워지자 행사장 무대에선 카운트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해맞이객들은 저마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동쪽으로 향했다.

수평선과 맞닿은 잿빛 구름에 가

려진 첫해는 잠시 틈을 들이다가 예상 시간보다 4분가량 늦은 7시 35분께 붉고 강한 빛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고,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부산에서 아내와 함께 온 석성열(66)씨는 "지난해 나쁜 경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올해는 살면서 처음으로 일출을 보러 왔다"며 "국가 경제가 좋아져서 시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함께 간절곶에 온 울산 동백초등학교 2학년 하리원 양은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학원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해맞이 행사가 열린 강원도 강릉 경포·강문해변에도 여명이 트기 전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경포 중앙광장에는 영하 9도의 추위에 따뜻한 차를 무료로 받기 위한 방문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다소 강한 파도가 치고 구름이 낮게 깔린 바다 위로 첫해가 떠오르자 시민들은 '와~'하는 탄성과 함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으로 남겼다.

춘천에서 온 남모(43)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에서 쏘는 새해를 봤다"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화로운 새해가 되길 빌었다"고 말했다.

다. 강릉시는 이날 지역 내 해맞이 인파를 30만3천여명으로 추산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등 주요 해수욕장에도 인파 몰려 희망찬 한해를 시작했다. 떠오르는 해를 배경으로 바다 수영과 러닝, 서핑 등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제주 성산일출봉, 광주 무등산, 충남 당진 왜목마을, 전북 임실 국사봉

, 수원 팔달산, 고양 행주산성 등 해맞이 명소에도 방문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 "굿바이 2025"...전국 종각서 울려 퍼진 새해 첫 종소리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도 자정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부산 용두산공원 종각에서는 이날 0시 '부산 시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렸고,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붉은 말'을 주제로 2천500대의 드론을 투입한 '2026 카운트다운 특별공연'이 개최됐다.

강릉 임영대 종각에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농악 등 식전 공연을 시

작으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에 이어 시민대표들이 타종하며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수원시 여민각, 창원시 마산 불종거리, 광주시 민주의 종각,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등 전국 각지의 종각과 광장에서도 타종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두꺼운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채 종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고 행복한 한해를 기원했다.

(김소연 임채두 정다음 김현태 김솔 민영규 최재훈 최은지 박지호 장지현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1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병오년 첫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HAPPY NEW YEAR

2026



2026 병오년

찬란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저희 H 마트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기원하시는 모든 소망을 한아름 이루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박해수 "대홍수, 일반적이지 않은 대본... 도전해보고 싶었죠"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홍수로 인한 지구 최후의 날, 인공지능 연구소의 인력보안팀 요원 희조(박해수분)는 침수돼가는 한 아파트를 찾는다.

그 아파트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인공지능 개발 책임자 안나(김다미)가 어린 아들과 사는 곳이고, 희조는 안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재난의 한 가운데에서 희조는 출근을 한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임무이기도 하지만, 안나가 과연 끝까지 아들 곁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 때문이기도 하다.

김병우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원 안나가 어린 아들 자인(권은성)을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블록버스터 영화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려지는 경험을 한 희조는 안나가 자신의 엄마와 같은 선택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희조를 연기한 배우 박해수는 "인류의 마지막 날 희조는 왜 굳이 자기 엄마와 같은 선택을 하는 (안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궁금했고 잘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눈빛에서 나오는 미묘한 느낌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촬영했고 감독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해수는 감정의 흐름이나 인물의 의도 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김 감독과 촬영 전 길게는 몇 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그는 "감독님과 배우들이 장면별로 각자 의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며 "대사 한 줄이라도 제가 이해를 덜 하고 촬영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와 달리 '대홍수' 대본은 그의 도전 의식을 자극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각종 숫자로만 장면이 나뉘어 있었다.

박해수는 "대본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구성이나 장면의 시작 등을 해독하는 느낌이었다. 어렵거나 난해하지는 않았고, 두 번 정도 읽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박해수는 영화 '굿뉴스'와 드라마 '악연'·'자백의 대가'에 이어 '대홍수'로 올해만 네 편의 넷플릭스 작품으로 시청자를 만났다.

그는 "3년 전부터 짝어온 작품들이 올해 다 공개됐다"며 "시청자들의 피로도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없지 않다"고 털어냈다.

다만 그는 "(공개 시기는) 제 손을 떠난 일이고, 저는 제가 만나는 캐릭터들을 좀 더 섬세하게 제공하고 발전시켜 가며 제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이후 넷플릭스로 공개된다는 점은 그가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됐다.

박해수는 "우선은 (플랫폼보다) 작품을 보고 선택하지만, 넷플릭스로 공개되면 더 많은 시청자가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있는 것 같다. 작품을 잘 만들어서 한국 영화나 공연 등을 더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2',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 비영어 쇼 1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 첫 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다.

24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뎀'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2'의 지난주 시청 수(Views·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55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주로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흑백요리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스타 셰프 '백수저'들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난 '흑수저'가 요리

대결을 벌이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공개된 시즌 1이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만큼 그 인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안은진 주연의 SBS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가 4위, 전도연·김고은이 출연한 시리즈 '자백의 대가'가 7위에 들었다.

비영어 영화 부문 1위도 한국 콘텐츠가 차지했다.

김다미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대홍수'가 2천70만 시청 수를 기록해 1위 자리에 올랐다.

heeva@yna.co.kr



▶▶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Hanukkah

- ▶ Thursday 12/18
-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Martin Puryear: Nexus

- ▶ Through 2/16

Exhibition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 Final weeks
- ▶ Closes 1/19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4) 은퇴와 한 해를 마감하며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생계를 위해 정신 없이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흘러갔다. 이제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노후 자금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다. 은퇴 자금을 운용하면서 국내외 정치, 금리, 경제 전망, 생활비, 오프닝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등 걱정거리는 끝없이 이어진다.

은퇴한 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민은 “평생 동안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까?” 라는 질문이다.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매일 1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대열에 합류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죽는 날까지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텍대학의 마이클 기예메트 (Michael A. Guillemette) 교수가 발표한 논문 ‘Risks in Advanced Age’ 는 노년층의 재정 관리 위험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

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투자 판단력 (Cognitive Ability) 은 점차 흐려진다. 젊어서 익힌 재정 지식은 쉽게 잊히고,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객관적인 안목 역시 좁아져 ‘확실하다’ 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 은퇴 투자자의 마음도 크게 흔들린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는 이성적 판단은 뒤로 밀리고, 확정급리가 주어지는 CD, 단기 채권, 현금 보유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 투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실질 가치를 갉아 먹는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주식시장과 재정 관리는 공원 산책처럼 단순하지 않다.

은퇴 재정 관리에는 세금, 자산 분배, 분

산 투자, 수익률, 생활비, 의료비, 투자 위험, 상속 등 복합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목적 (Investment Policy) 과 구체적 투자 방법 (Process) 을 문서로 정리하자. 이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또한 여러 금융 계좌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하면 재정 관리가 크게 단순해진다.

둘째, 가정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재정 상태와 관리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정을 전담해 온 가정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남은 배우자가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기 쉽다. 부부가 함께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홀로 남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자녀들과 재정 상황을 적절히 공유하고 상의하는 것 역시 현명한 준비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

셋째, 믿을 수 있는 재정 설계사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할 만한 재정 설계사 (Financial Planner) 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수탁자 의무 (Fiduciary Duty)’ 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설계사라면 매년 수익률을 문서로 보고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종목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자는 물론 세금·상속 등 돈과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불안한 투자로 마음이 흔들리면 건강까지 해질 수 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 관리를 통해 남은 인생이 걱정보다는 여유와 즐거움으로 채워질길 바란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기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성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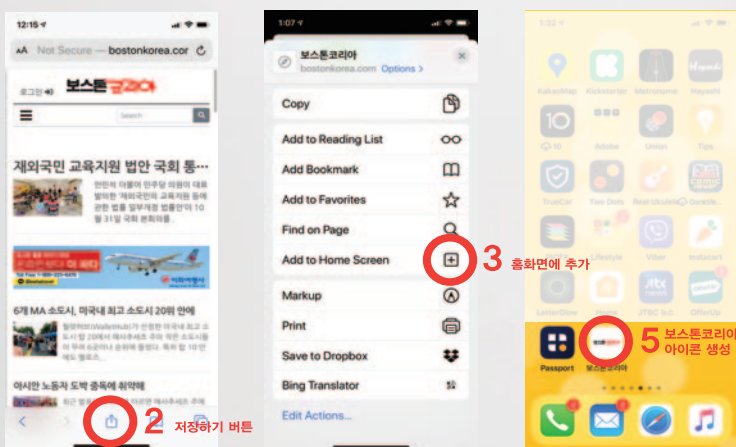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자료 제공 : 지윤 철학원 213.739.2877
www.askjiyun.com

병오(丙午)년, 띠별로 본 2026년의 운세

흔히 새해가 되면 무슨 띠는 좋고 무슨 띠는 나쁘다는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열두 띠라는 것으로 우열과 장단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필의 비단을 짜는데 꼭 있어야 하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만이 아닌 주위도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운세란 띠별로 볼 때 전반적인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를 맞이하는 개인은 각자 성실하고 매사에 자중하는 것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지혜라 하겠습니다.

쥐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바쁜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해.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니 이사나 직장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 만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가을에는 큰 기쁨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활동은 많이 하나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는 해입니다. 침착함과 조심성이 요구되는 때이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를 많이 하고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
유리한 달 4월, 8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9월.

소띠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놓치는 것이 없도록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 해. 남을 함부로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 발생할 수 있는 해.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불투명하니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
유리한 달 5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7월, 10월.

범띠

활력이 넘치고 회복의 시기
밝은 앞날이 확실해 보이고 숨겨져 있던 재능을 맘껏 발휘하게 되는 해. 가정생활은 고요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꼬인 매듭이 풀리게 되므로 애태우던 일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궤도수정이 있는 해. 활력이 넘치고 환자는 회복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명예와 지위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따라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5월, 8월, 11월.

토끼띠

일보전진을 위해 잠시 재충전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더 나은 발전과 일보전진을 위해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한 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뭇가 몸에 좋은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해. 이성 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 특히 새로운 교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6월, 9월, 12월.

용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
자신의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고 사교적인 면에서도 좋은 해. 전망이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투자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색깔의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금전과 명예가 한 아름 들어오니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에 적기입니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기회가 다가오고 수입과 수익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
유리한 달 2월, 8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7월, 10월, 11월.

뱀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힘과 지위와 인기를 다시 얻게 되는 발전적인 해입니다. 획기적인 사업도 연결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이 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투자는 장기전이 유리하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업무가 정상으로 가동되며 소망했던 일도 이루어지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
유리한 달 6월, 7월, 9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8월, 11월.

말띠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는 해. 큰 뜻을 이루고 즐거운 웃음 속에 지내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니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도 다시 찾게 됩니다. 의욕이 되살아나니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해.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고 부진하던 것도 활기를 찾게 됩니다. 주위의 인정을 받고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여러 면에서도 움을 줍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9월, 12월.

양띠

사랑이 이루어지고 안정이 되는
가정 내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해.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이 보호되고 유지되는 시기이므로 가망이 없었던 곳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아이디어는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10월, 12월.

원숭이띠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는 해.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아 지니 대체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해서 좀더 연구하고 발전을 시도하면 이득이 따라옵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가 황금 마차를 타게 되는 것처럼 편안해지고 행운이 따릅니다. 환한 기운이 맴도니 어려운 문제도 매듭짓고 중단되거나 침체했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
유리한 달 4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3월, 6월.

닭띠

새로운 각오로 능력을 개발해야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변화하지 말고 하던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해. 씩씩이를 줄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능력을 개발하고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신중히 처리합니다. 틈틈이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적절한 취미로 그때때 풀어야 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
유리한 달 1월, 4월, 5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12월.

개띠

행운이 함께 하는
거칠 것이 없는 시기이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고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되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향상되고 승진하거나 실력 발휘를 맘껏 하게 되니 계획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핑크빛 분위기가 감돌고 결혼의 시기로 최상의 해가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
유리한 달 2월, 3월, 6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7월.

돼지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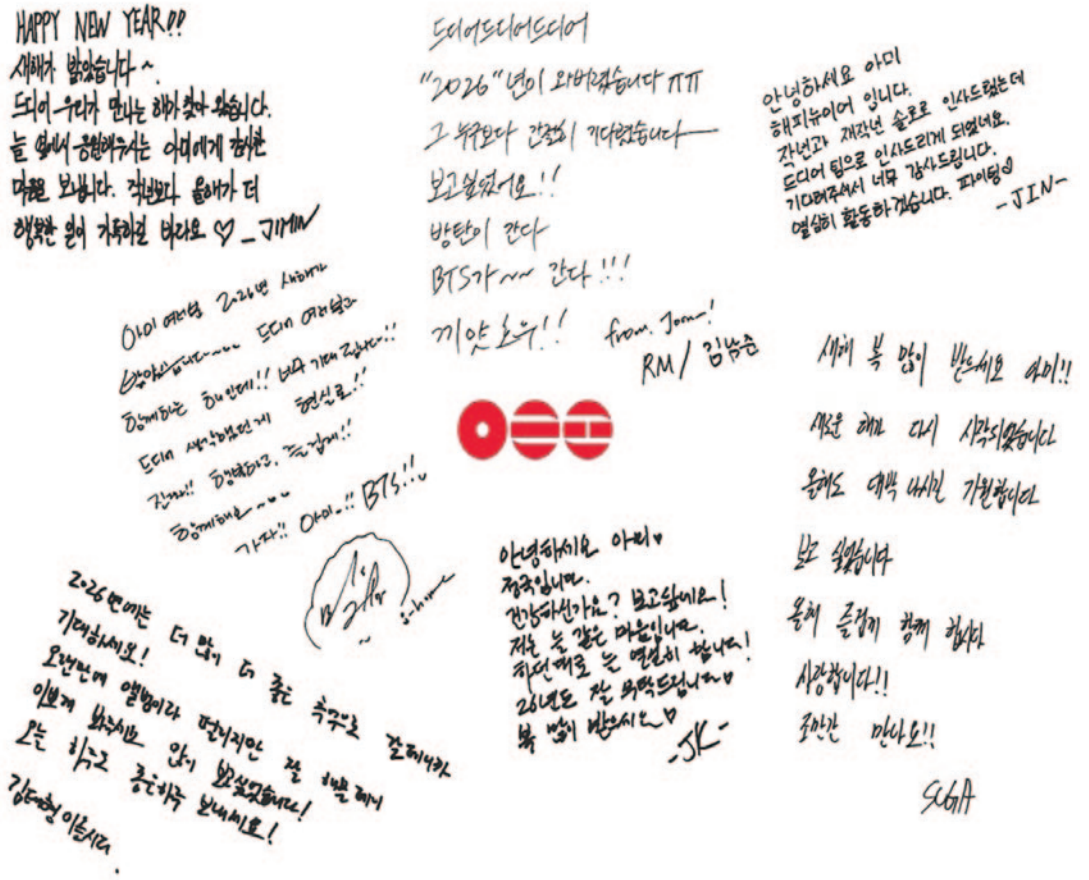
커다란 수확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차츰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는 해.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됩니다. 분주하고 바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없는 해. 돈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 도하는 때입니다. 좋건 나쁘건 극적인 사건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
유리한 달 3월, 7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8월.

BTS, 3월 20일 3년 9개월 만에 신보로 컴백... "간절히 기다렸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20일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앨범을 내는 것은 지난 2022년 6월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손글씨로 쓴 편지를 '아미'(팬덤명)의 자택으로 보내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편지에는 '2026.3.20'이라는 날짜가 적혀 컴백 시기를 공식화했다. 팀의 리더 RM은 편지에서 "그

누구보다 (컴백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박찬 소감을 밝혔다.진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고, 슈가는 "올해도 즐겁게 함께 합시다. 사랑합시다"라고 적었다. 제이홉은 "드디어 생각했던 게 현실로"라고 기대를 드러냈고, 지민은 "우리가 만나는 해가 찾아왔다"고 썼다. 뷁는 "2026년에는 더 많이 좋은 추억으로 갈 테니까 기대 달라"고 했고, 정국은 "보고 싶네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실물 편지를 받지 못한 팬들은 이달 말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또한 전날 밤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도 했다. 멤버들은 "올해는 무사히 컴백해 앨범이 잘 됐으

면 좋겠다"며 "방탄소년단 대박나자"라고 기원했다.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 새 앨범을 낸 뒤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

한다. 앨범과 콘서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공개된다. tsl@yna.co.kr

1월 4일 - 1월 1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p> <p>●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소띠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p> <p>●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범띠 활기를 찾게 되는</p> <p>●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전회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연인이나 부부 사이도 좋아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p>
<p>토끼띠 행운이 함께 하고</p> <p>●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9일 길일, 8, 10일 주의.</p>	<p>용띠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p> <p>●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돈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10일 길일, 5, 9일 주의.</p>	<p>뱀띠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p> <p>●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가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나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8, 9일 길일, 4, 10일 주의.</p>
<p>말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p> <p>●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p>	<p>양띠 짚고 넘어가야</p> <p>●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짚고 넘어가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5, 8일 길일, 6, 9일 주의.</p>	<p>원숭이띠 부지런히 노력해야</p> <p>●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고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6, 10일 길일, 4, 7일 주의.</p>
<p>닭띠 시야가 환해지면서</p> <p>●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기본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본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앓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해집니다.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개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p> <p>●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못재거리가 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p>돼지띠 심기일전하는</p> <p>● 운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기일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씹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p>



돈 써야 강해지는 '캐셔로'...이준호 "생활감 잔뜩 묻은 히어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어느 날 초능력이 생겼다. 다만, 조건이 있다. 손에 쥐 돈만큼만 힘이 생긴다는 것.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캐셔로'(Cashero)는 제목 그대로 돈(Cash)이 필수 불가결한 영웅(Hero)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상용을 연기한 배우 이준호는 22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저축하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갑자기 초능력을 받으면서 딜레마에 빠진 인물"이라며 "생활감 잔뜩 묻은, 공감하기 쉬운 히어로"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상용의 초능력은 손에 쥐 현금만큼만 힘

이 생기는 것으로, 힘을 쓰면 돈도 사라진다

이처럼 덜컥 생겨버린 조건부 초능력 때문에 돈이 줄줄 새는 상황에 부딪친 주인공의 이른바 '잔내'는 영웅기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이창민 감독은 "초능력과 저주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용이 성장하면서 저주가 아닌 진정한 초능력을 쓰는 모습을 후반부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극 중 다른 초능력자들도 각자 조건과 딜레마를 안고 있다.

변호인(김병철 분)은 술에 취해야만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방은미(김향기)는 먹은 음식

의 열량만큼 염력이 생긴다.

김향기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다이어트도 하지 못하고 염력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은미의 내면에 화가 가득하다"며 실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싶냐는 질문에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역할에 몰입한 듯한 대답을 내놨다.

이들의 능력을 노리는 악당으로는 조안나(강한나), 조나단(이체민) 남매가 나온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조안나가 상용을 향해 "너 이제 돈 없지, 거지ㅇㅇ야"라고 일갈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한나는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 없는 말이지만, 맛있게 표현하고 싶었다"며 두 차례 더 같은 대사를 선보였다.

설정만 보면 돈에 연연하는 히어로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돈보다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준호는 "사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남을 쉽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며 "저도 촬영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총 8부작으로, 오는 26일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된다.

화사 '굿 굿바이', 음원차트 '씩쓸이' 480회...청룡영화상 효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걸그룹 마마무 화사의 솔로곡 '굿 굿바이'가 국내 음원사이트 1위를 동시 석권하는 '퍼펙트 올킬'을 500회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온라인 음악 순위 통합 집계사이트 아이차트에 따르면 '굿 굿바이'(Good Goodbye)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총 485회의 '퍼펙트 올킬'을 기록했다.

아이차트는 특정 곡이 멜론·유튜브 뮤직·지니 등 국내 주요 6개 음원 플랫폼 인기차트에서 동시 1위를 기록하고, 아이차트 자체 순위에서도 정상에 오른 경우 1시간에 1회씩 '퍼펙트 올킬'을 부여한다.

'굿 굿바이'가 기록한 485회의 퍼펙트 올킬은 아이차트 통산 4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국내 솔

로 가수 중 최다다.

지난 10월 발매된 '굿 굿바이'는 화사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배우 박정민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특별공연을 선보인 것이 화제를 일으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이외에도 빌보드 코리아가 집계하는 '빌보드 코리아 핫 100'에서 2주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최고 32위를 기록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한편 화사는 다음 달 17~18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미 카사'(MI CASA)를 개최한다. 화사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데뷔 12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cjs@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2026년 '새해 새 다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37:5-6)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계획, 기대, 그리고 두려움 앞에 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가정의 길, 건강의 길, 사명의 길, 신앙의 길,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한 구절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신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신다고 말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원리이고 약속이다. 오늘 이 말씀이 2026년의 방향과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축원한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구분하는 것이 바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는 것이다. '길' 이란 삶의 전 과정, 하루의 선택, 사명, 인간관계, 인생의 방향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사람

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GPS가 없이 길 찾던 시절, 종종 길을 잃었다. 지도가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곳에 도착한다. 막내아들이 6살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해서 하이스쿨까지 했다. 그때는 지도를 컴퓨터에서 뽑아 손에 쥐고 찾아 운전하던 시절이었다. 그 몇 년 동안 두 차례 아이스링크를 찾지 못해 빙빙 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다. GPS는 방향 제시, 그러나 목적지는 운전자가 결정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GPS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인도자이시다. 그 이유는 나는 길을 '소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맡겨야' 할 존재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이다. '맡기라' (히브리어 Galal)는 단어를 굴리다,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삶의 무게를 내 손에서 주님께 굴려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집착 내려놓기, 결과 컨트롤 내려놓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만들기

로 말할 수 있다. 예를들어 어떤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한다고 하자. 아버지가 "아빠가 들어줄게" 말하지만 아이가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아이는 힘들고, 아버지는 옆에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바로 그것은 결과를 향한 태도이며 믿음이다. '의지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 지혜, 타이밍보다 앞서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 는 믿음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왜 아직?" 에서 "주님 뜻이면" 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도 기다림 속에서 약속을 보았다. 요셉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만났다. 다윗도 도망자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의지란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인 것이다.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결과는 하나님

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과정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결과의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방식은,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르게,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늦거나 빠르게,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게 문제를 해결해주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또한, 사역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루어가신다.

시편 37편 5절-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끄신다. '맡기라' 는 말씀은 바로 내려놓으라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다. '의지하라' 말씀은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루시고' 라는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며, 그러할 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2026년에도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긴다. 나의 걸음보다 주님의 시간을 신뢰한다. 주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복장 인식 (Enclothed Cognition)**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삼성회장이 팬들을 만났다. 팬보다는 고객이라 해야 할진대. 그가 단상에 섰고, 마이크를 잡았을 적에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졌다. '삼성폰으로 찍고있나요?' 수줍은듯 회장의 첫마디였다. 관중석에선 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켓팅이 깔끔하다. 회장이 당일 입었던 윗저고리

가 화제라 했다. 계열회사 제품인데 값비싼 점퍼는 아니라고 전한다. 덕분에 점퍼는 날개 돋친듯 팔렸다 했던가. 연예인도 아닌바, 대중을 향한 영향력은 대단하다.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신는 신발부터 입고 있는 옷까지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다. 이번엔 회장의 아들이다. 아들은 해군장교로 임관했는데, 고된

훈련을 마쳤다고 한다. 임관식엔 아버지인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제복에 장교계급장을 달아 주었다던가. 훈련은 무척 힘들었을 게고, 장교 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비쳤다 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한 말. "수고했다."

두어달 전 입교하던 해군소위의 모습이다.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인데, 배낭을 메었더라. 이전 해군장교 복장이 깔끔하고 당당하게 보여 씩 잘 어울린다. 목소리마저 다부진 장교가 된거다. 복장이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복장이 장교를 만드건 건지. 옷이 날개라는 한국 속담도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입으라. 모두 복색의 중요성

을 강조한 말인데, 복장인식(en-clothed cognition, 服裝認識) 이라 한다. 말이 어렵지만 제복효과와制服效果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해군장교는 지휘관답게 제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바, 병원의사는 흰가운으로 신뢰감을 증진할 수있다고 한다. 모시옷이 선비의 제복인가. 시 한편이다. 아난계 아니라 모시옷 입을 모습은 선비를 떠올리게 된다.

삼복 더위에 생각나는 모시옷 한벌
내 작은 몸보다 치수가 넉넉한 그마음
거울 앞에 입고서 보면 (나는) 의젓한 한국의 선비

(송수권, 모시옷 한 벌 중에서)
그나저나 삼성회장의 직접 마케팅 덕을 봤던가.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덕분에 해군장교를 지원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날게 틀림없다. 일단 폼나지 않는가. 한국육군 일개 병사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내 이야기인데 상병을 달았을 적에 어깨가 조금은 퍼졌다. 색바랜 군복이 몸에 맞는 듯 싶었던 거다. 새해 첫날이다. 새해 첫날엔 한복을 입어야 제격이다. 독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 3:21)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 **코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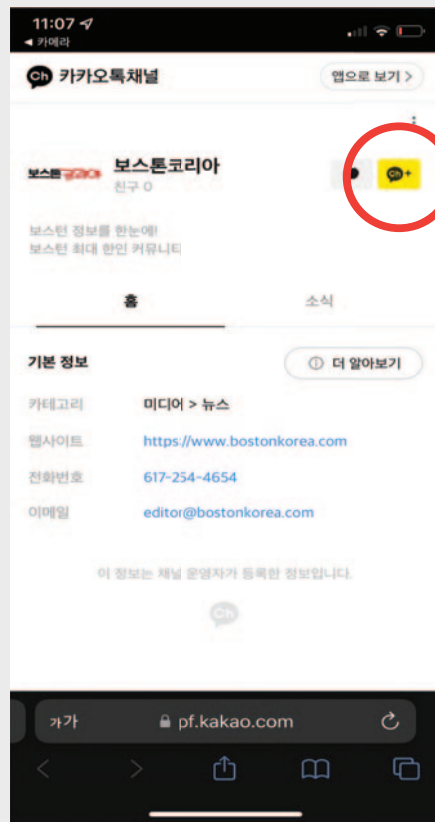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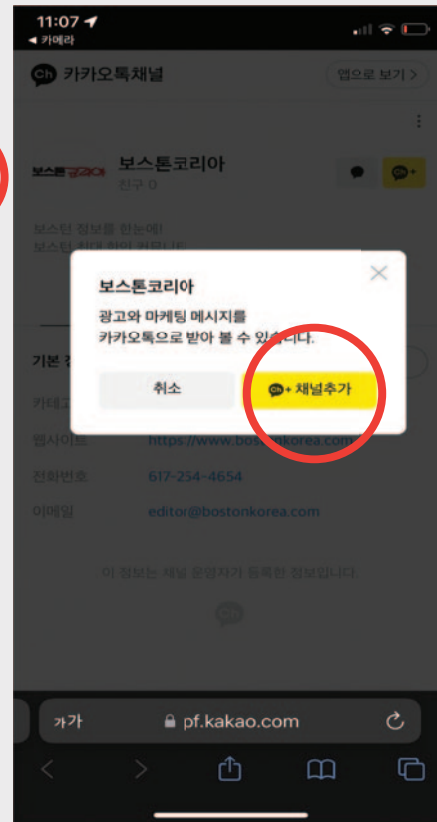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 한파, 우리 몸 혈관 시스템 위협... 심뇌혈관질환 주의보 발령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겨울철에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최 규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적색 주의보'가 발령된다. 찬 기온은 단순히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심장과 뇌혈관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가해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2025 절기(12월 1일 ~ 2월 28일)' 신고 자료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으며,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특히 환자의 54.8%와 사망자의 87.5%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로 실내보다 약 2.9배 많았

으며, 특히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온이 가장 낮은 아침 시간대의 추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 반응을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빨라져 심혈관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다. 이러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은 혈액 내 점도(끈끈함)를 증가시키고 혈소판 활성화 및 응고 경향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혈관 내에 혈전(피떡)이 생기기 좋은 상태를 만들며,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에 의해 갑자기 막혀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은 가슴 중앙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이다. 이 통증은 왼쪽 어깨나 팔, 목 또는 턱으로 뻗칠 수 있으며, 숨이 차거나 식은땀, 어지럼증, 구토 증상을 동반

한파 뇌심혈관 질환 주의

기온 떨어지면 혈관 수축 · 혈압 상승
극심한 두통, 마비 발생 → 응급실 방문

예방법 ① 고혈압 · 흡연 · 가족력 → 정기 검진
② 한파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온도차 줄이기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 없던 갑작스러운 흉통 · 답답함 · 숨가쁨이 나타나거나,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이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상동맥 협착을 가진 환자라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파 속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예방 수칙은 보온을 넘어선 혈관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한 벌만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입어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 장갑, 목도리로 머리, 목, 손발 등 체온이 쉽게 빠져나가는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가장 내려간 아침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능한 자제하고, 몸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는 운동이나 작업은 피해야 한다. 한파는 심장과 뇌혈관 등 우리 몸 내부의 혈관 시스템 전

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심혈관계 병력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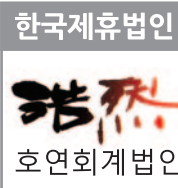
“겨울 한파, 우리 몸 혈관 시스템 위협...” 심뇌혈관질환 주의보 발령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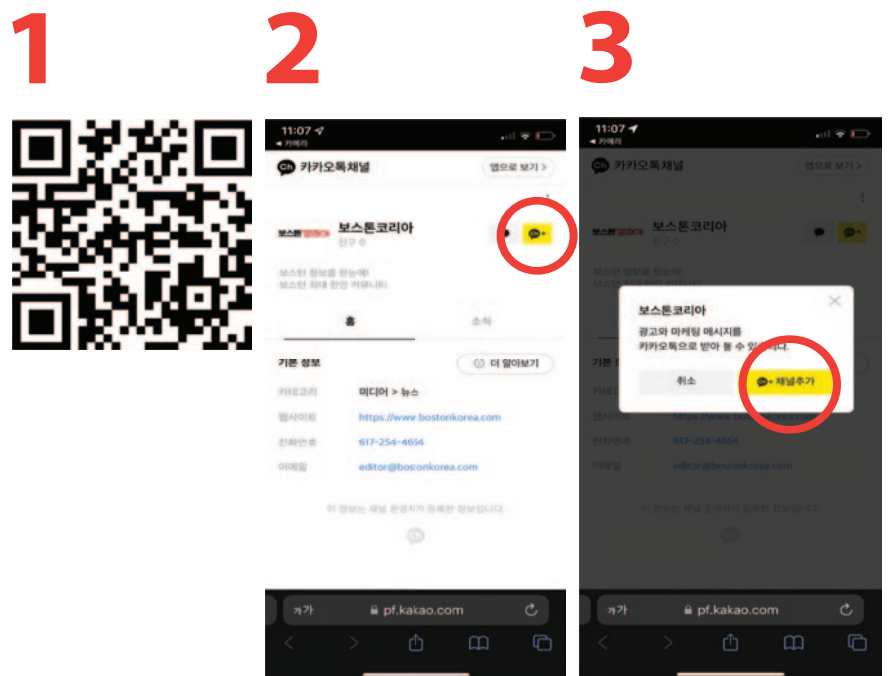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